ISSUE REPORT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IR-19-12 | **송부일** 2019.06.07 | **담당자** 사업본부 분석2팀 박성식 연구원 (sspark0716@cgs.or.kr)

한진칼 (180640)

등급	2018	2017	2016
ESG 통합	C	C	C
지배구조	C	C	C
사회	B	C	D
환경	C	D	C

Recent issue | 관련분야 지배구조 |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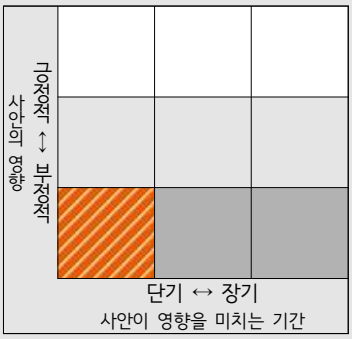
KCGI,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 검사인 선임 청구

- 한진칼은 6월 4일 2대주주 KCGI가 서울중앙지법에 양 사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 사실을 공시함
- 2대주주인 KCGI는 조원태 대표이사의 한진칼 회장 선임 안건이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되었는지 여부, 동일인 변경과 관련된 공정위 제출 서류에 조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기재하였는지 공개할 것과,
- 故 조양호 전 회장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주총 결의 내역, 관련 규정 제정 주체, 그리고 회사 설립 후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액수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

(출처) KCGI "조원태 회장 '선임' 조사해야 vs 한진 "적법하다", 머니투데이, 20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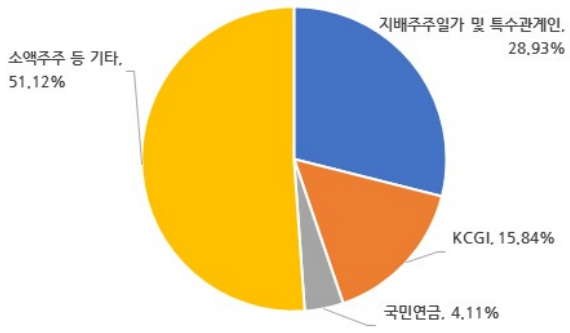
Comment

- 4월부터 지적된 바 있는 조원태 회장 선임 과정의 적법성 문제는 지난 5월 그룹 동일인 변경 신청 지연과 맞물려 한진칼 이사회가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과 경영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과거 한진칼 지배주주는 불투명한 보수 수령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회사는 최근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을 유족에 지급하며 지급 규정과 규모에 대해 주주가 납득할 만한 정보를 밝힌 바 없어 보수지급의 불투명성 문제가 재현됨
- 아울러 상기한 문제에 대하여 현재 회사 측은 기본적인 공시 정보 이상의 소통을 회피하고 합법성 여부만을 주장하는 방어적인 대응으로 일관함



- 한진칼 이사회는 종전부터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와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기능이 저조하여 주주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직면했으며, 이사회는 올해 사외이사 증원, 위원회 신설 등 일부 개선책을 추진함. 그러나 여전히 경영승계 및 임원보수 규율 기능 저조, 주주와의 소통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
- 향후 이사회가 주주의 요구에 대응하여 주주이익을 최대화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법정공방을 통해 주주제안을 배제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최근 KCGI의 요구에 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한진칼 주요주주 지분구성



한진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2019.5)

성 명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조양호	부	10,553,258	17.84
조원태	본인	1,385,295	2.34
조현아	친족	1,366,687	2.31
조현민	친족	1,358,020	2.30
정석인하학원 등	재단	1,997,625	3.38
기타	친족, 임원	461,807	0.76
조원태 등 특수관계인		17,122,692	28.93

출처: KCGS, DART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책임투자 지원서비스 분석자료 일체에 대한 면책약관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gs.or.kr/etc/disclaimer.jsp